

중국 소수민족 두식의 유형분석: 쓰개를 중심으로

박춘순 · 김일정*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중국 소수민족이 현재 사용하고있는 쓰개를 4대지구와 성별로 구분하고 쓰개의 명칭과 형태에 대하여 고찰한 후 도식화를 한다. 둘째는 이를 종합하여 쓰개의 유형을 분석하고 쓰개에 나타나는 상징성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있다.

4대지구중 동북·내몽골지구는 북방에 위치하여 강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수피(獸皮)를 이용한 복식, 쓰개와 샤머니즘이 발달하였다. 이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각 민족의 의식을 지배하였다. 남·녀 구별없이 주로 모자를 착용하고 겨울과 수렵시에는 보온과 위장을 목적으로 구두피모를 쓴다.

서북지구는 고온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흰두건과 모피망토를 두르고 허리에 벨트를 묶어서 기후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으로 개두와 두파(頭帕)양식이 발달하였다. 후이족의 양식이 서북지구를 대표할 수 있다. 남자는 小帽나 연모를 착용하며 여성은 개두가 일반적이다. 쓰개의 색상을 통해서 여성의 신분을 알 수 있으며 재질은 주로 목면과 비단으로 제작한다.

서남지구의 쓰개는 라마교의 영향으로 모자와 두파양식을 따른다. 그중 장족은 한냉한 고원지대의 기후영향으로 털를 이용한 남자의 스타일은 비교적 단순하나 여자의 두파양식은 매우 다양다종하고 화려하다. 쓰개의 길이가 대개 길고 두른 모습이 크며 민족에 따라 특색있는 장식을 하기도 한다.

중남지구의 기후는 온화하며 토렘과 원시신앙이 공존하는 민족으로 다른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화죽모, 봉황모 등의 아주 이색적인 쓰개 형태가 있다. 남·녀 모두 목면의 청파나 흑두건을 착용하며 뽀족한 스타일의 모자를 쓰거나

두건을 이용해서 높이 세운다. 징족과 모난족은 인접된 월남족의 영향으로 차양을 위한 죽립을 쓴다. 흑색두건을 많이 착용하며 모자에 채색용구와 술을 달아 화려함을 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소수민족의 쓰개는 북방민족은 물리적·실용적 성격이 강하고 남방민족은 상징적·장식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소수민족의 쓰개는 봉재정도에 따라 성형·반성형·비성형쓰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북방민족의 쓰개는 봉재선이 있는 반면 남방민족의 봉재선은 적게 나타난다. 재질은 북방민족은 그 지역에 분포한 수피를 이용한 모자를 쓰며, 남방민족은 건을 이용한 두파형식이 일반적이다.

셋째, 소수민족의 쓰개는 성별·연령·남녀에 따라 다르며 혼인이나 성인식을 치렀는지의 여부에 따라 색상이나 모양이 변한다든지 장식물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넷째, 민족종교의 영향을 받아, 신봉하는 종교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민족은 예배시 쓰개양식을,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민족은 쓰개가 불탑과 유사한 탑형으로 표현되었다.

다섯째, 각 민족이 지니는 쓰개는 풍속의 상징성을 갖는다. 민족 종교신앙에 따라 쓰개는 색상과 장식, 사용되는 소재를 통하여 특정한 의미를 표현한다.

중국의 개방에 따라 문화가 현대화되면서 복식은 점점 양장화되어가고 있지만 그 민족의 특색이 가장 짙은 쓰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소수민족쓰개는 다양한 민족의 특색을 표지하면서 지리적 기후와 종교 그리고 풍속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